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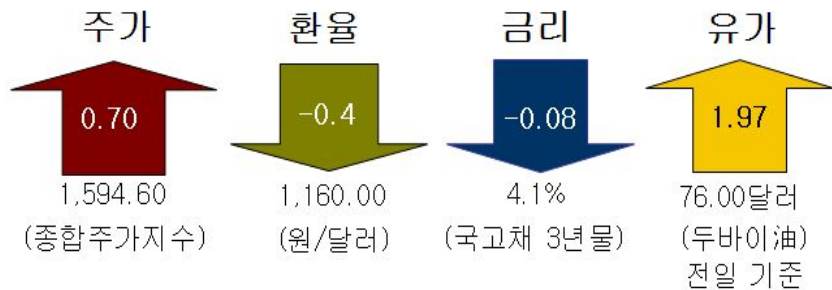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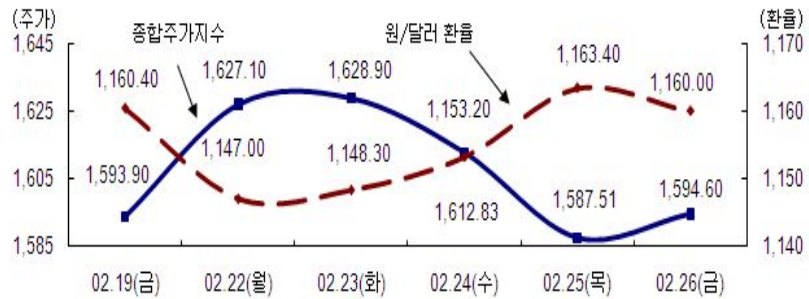
10-08(통권 388호)
2010.02.26



-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 영국 가계부채 급증과 경제불안 현상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9~2.26)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영국 가계부채 급증과 경제 불안 현상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영국 가계부채 급증과 경제 불안 현상

영국의 가계부채는 2000년대 이후의 주택경기 호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모기지대출) 증가에 기인하여 현재 주요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 가계부채 급증의 배경은 첫째, 저금리 기조이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역시 2000년 이후의 글로벌 저금리기조에 동참하면서 가계의 차입여력을 확대시켰다. 둘째, 주택가격 상승이다. 2000년대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 현상 속에 영국의 주택가격도 급등하면서 가계들이 매매차익을 기대한 주택모기지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이다.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영국의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모기지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시켰다. 넷째, 신용대출 증가이다. 영국 가계들은 2000년대 들어 과소비, 2006년 하반기부터는 생계형 지출 등으로 신용대출도 꾸준히 늘어났다.

영국 가계부채 급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가격 급락, 은행의 건전성 악화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맞은 이후 가계의 원리금부담에 따른 소비능력 약화, 개인파산 급증, 그리고 신용경색 현상 심화 등에 직면하면서 소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경제회복은 2009년 3/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주요 국가와는 달리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국 경제 위기에 대한 논쟁까지 가세되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도 2000년 이후 영국과 매우 유사한 배경으로 급증하고 있어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가계부채 감소 상황에서도 2009년 2/4~4/4분기 동안 약 50조원 증가하였다. 둘째, 가계 능력에 비해 부채의 규모가 크다. 개인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금융부채 비율이 영국의 170%대 바로 다음의 150%대를 기록하고 있다. 자금순환표상 금융부채/자산 비율의 경우는 45%로 일본 20%대 초반, 미국 30%수준, 영국 35%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 셋째,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하다. 주택담보대출을 차입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은 15% 수준으로 미국의 13% 수준에 비해 높다. 넷째, 가계부채의 실물자산 담보비중이 높다. 대부분의 가계부채 증가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칫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거나 실물자산이 유동화 되지 못할 경우 가계부채 해결이 어렵다. 다섯째,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유난히 크다. 소득분위별 1분위의 경우 자산이 없는데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320%로 이는 4분위, 5분위의 12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높은 가계부채가 대외 충격이 왔을 때 위험관리 차원에서 각 경제주체들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먼저 정책당국은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가계 실태 파악과 국가경제에의 면밀한 영향을 분석하고,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실물자산을 유동화하고, 특히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들도 무리한 가계부채 회수를 할 경우 결국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 전체 차원에서 가계부채 만기구조 장기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예컨대 현재의 주택담보대출을 미국 상업은행의 프라임모기지론 형식으로 20~30년 장기화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가계들도 자산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하여 자신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리스크관리를 위해 스스로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

영국 가계부채 급증의 현황과 배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 2배 이상 급증 - 주요국 중 가계부채 문제 가장 심각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배율, 170% (미 140%, 일 110%)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금리기조 지속과 주택가격 상승 - 주택매매차익을 기대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수요 급증 - 금융권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확대 노력 - 과소비, 생계형 지출 등으로 인한 신용대출 급증

영국 가계부채 급증의 과급영향	
소비 급락 및 신용경색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가계부채, 금융위기 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가격 급락 및 은행권 부실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하반기 이후 집값 20% 가량 급락 · 해외의존성이 높은 영국은행 재무건전성 극도로 악화 - 소비능력 약화, 개인파산 증가, 신용경색 심화
영국 경제회복 지연 및 위기론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경제회복 지연 및 경제위기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3/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지속 · 파운드화 절하 지속 및 최근 경제위기 논쟁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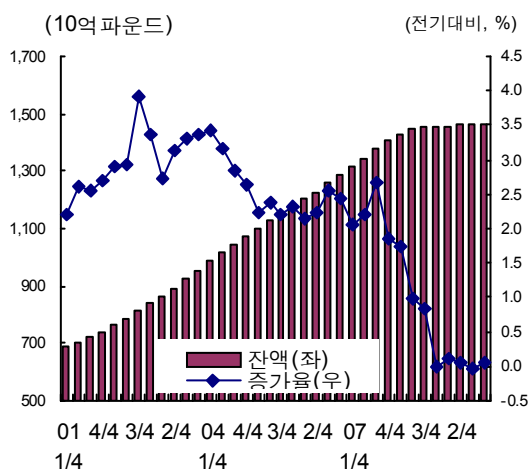
시사점과 대응 과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가계부채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속에서도 2009년 2~4분기 약 50조원 증가 ·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영국 다음의 150%대 · 원리금상환부담률(DSR), 미국 13%에 비해 높은 15% 수준 · 가계부채의 실물자산 담보비중이 높아 유동화 문제 잠재 · 소득분위별 1분위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 유난히 큼
대응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충격시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경제주체들의 대비책 절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확하고 세분화된 가계실태 파악, 중산층 이상의 실물자산 유동화 및 취약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방안 마련 · (금융기관) 무리한 일시적인 가계부채 회수 자제, 가계부채 만기구조 장기화 방안 마련 ·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재조정, 금융책임에 대한 이해력 증대를 위한 금융지식 함양

1. 영국 가계부채 급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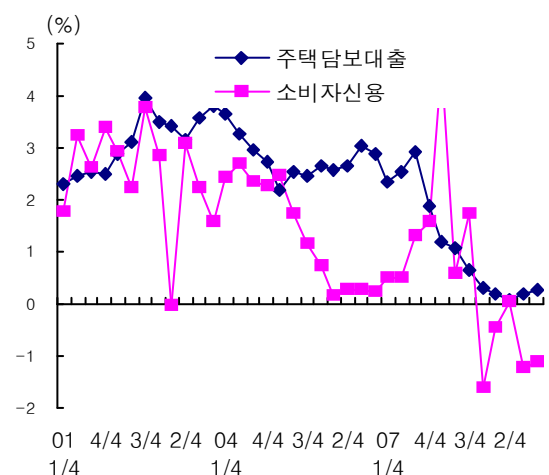
○ 영국의 가계부채는 2000년대 들어 주택경기 호황 때의 모기지대출 급증으로 인하여 빠르게 증가

- 2000년 말 7,000억 파운드에서 2배 이상 늘어나 2009년 4/4분기 현재 1조 4,600억 파운드를 상회
 -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전분기 대비 평균 2.7%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
 - 2008년부터 증가율이 1%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잠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2009년 2/4분기부터 소폭 증가세 반전
- 영국 가계부채의 증가는 2000년대 이후의 주택경기 호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모기지대출)에 크게 기인함
 - 영국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loans secured on dwellings)과 소비자신용(total consumer credit, 신용카드 포함)의 합으로 계산
 - 2009년 2/4분기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소비자신용의 잔액이 각기 1조 2,267억 파운드와 2,323억 파운드로 모기지대출의 비중이 5배 이상 큼
 -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자신용보다 전분기 대비 평균 2~3%씩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

< 영국 가계부채 잔액 및 증가율 >



< 소비자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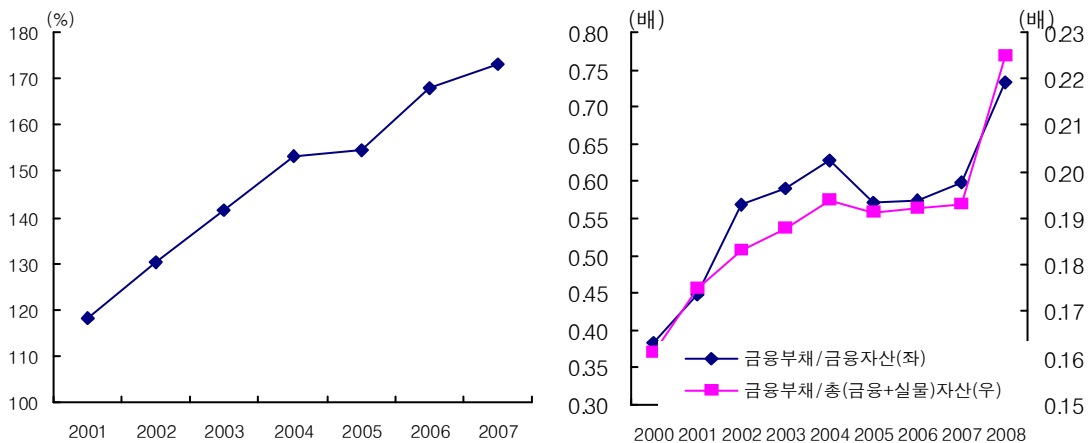


자료 : 영란은행.

○ 가계부채 급등으로 인하여 영국은 현재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 수준에 직면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급증하던 영국 가계의 자산대비 부채 수준이 2005년 이후 자산 가치 상승에 힘입어 안정되다가 2007년 이후 다시 급등
 -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는 2000년 0.38 수준에서 2008년말 현재 0.73 수준
 - 실물자산을 포함한 총자산대비 금융부채도 2000년말 0.16 수준에서 2008년 말 현재 0.22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¹⁾
- 영국의 가처분소득(gross disposable income)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비교대상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음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1년말 106.01%에서 2007년 173% 기록
 - 2007년 미국의 140% 수준, 일본의 110% 수준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
- 영국은 주요국 대비 현재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시티그룹의 Michael Saunders 등 주요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 등은 영국 가계부채 부담이 1990년 일본 토지버블 당시 보다 심각한 것으로 평가
 - 영국 통계청은 2008년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부담이 경제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있다고 경고

< 영국 가계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 > < 영국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



자료 : 영란은행,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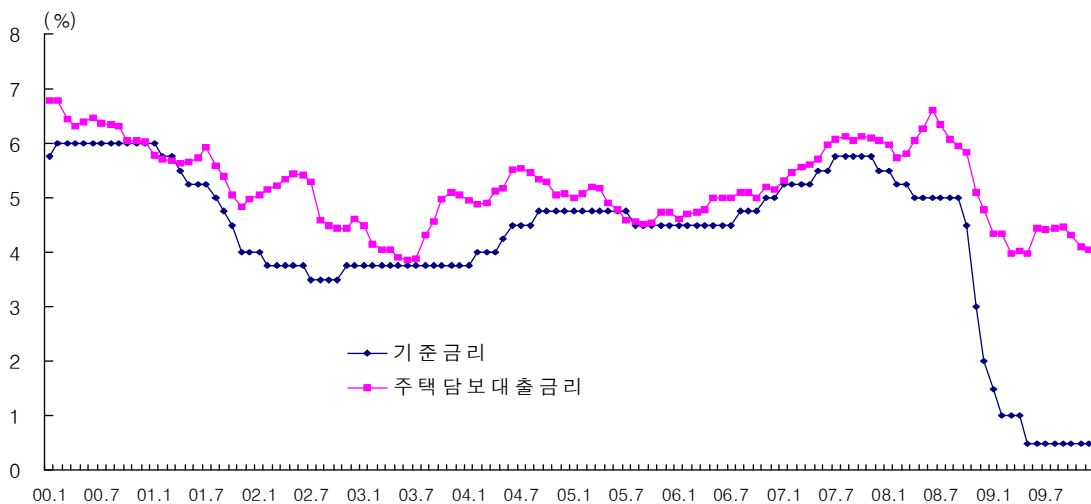
1) 여기서의 수치는 OECD 통계 자료로서 각국 자금순환표에서 구할 수 있는 수치와 다름.

2. 영국 가계부채 급증의 배경

○ (저금리기조)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역시 2000년 이후의 글로벌 저금리기조에 동참하면서 가계의 차입여력을 확대

- 영란은행은 2000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과 물가안정 기반 위에서 장기간 기준금리를 4% 내외에서 유지
 - 2001년 1월 6%에서 2003년 3월 3.5%로 2.5%p 인하 후 인플레이션 사전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인상하여 2006년 11월까지 4%대 수준을 유지
 -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2007년 7월 5.75%로까지 인상한 후 경기침체, 주택가격하락세 등으로 다시 저금리 기조를 유지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0.5%의 초저금리 기조 지속
- 저금리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미래소득의 현재가치 상승 등으로 가계의 차입여력이 확대
 - 초기에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절대적(2002년 72%)이어서 저금리 기조로 인한 차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 영국 기준금리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 >



자료 : 영란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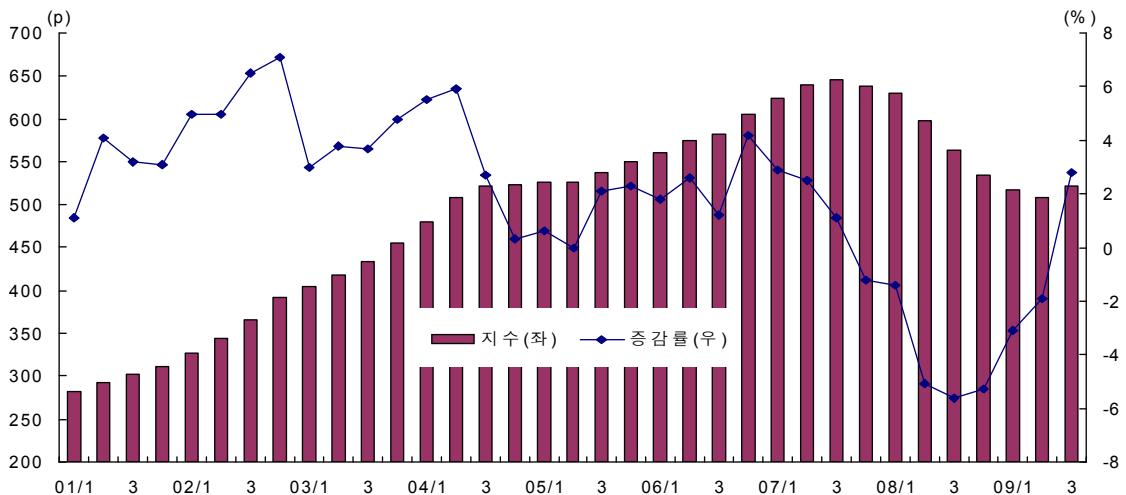
- 2) 2004년경부터 영국정부가 장기 고정금리부 모기지 차입을 적극 권장하면서 변동금리비중이 2005년 39%로 크게 낮아짐.

○ (주택가격 상승) 2000년대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 현상 속에 영국의 주택가격도 급등하면서 매매차익을 기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

- 1990년대 크게 떨어진 영국의 주택가격은 1996년부터 천천히 제한된 지역에서 상승하다가 2001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
- 1997년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 주택가격은 2001년 이후 급등하였다가 2003년 영란은행의 금리인상으로 2004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주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 현상은 2007년까지 지속되다가 2008년부터 20% 가량 하락한 후 2009년 3분기부터 소폭 상승세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기대한 주택모기지대출이 크게 증가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택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남
- 2000년대 초 닷컴(dot.com) 버블 붕괴 이후의 주식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Equitable Life 사건³⁾ 이후 연금시스템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실물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 영국의 주택가격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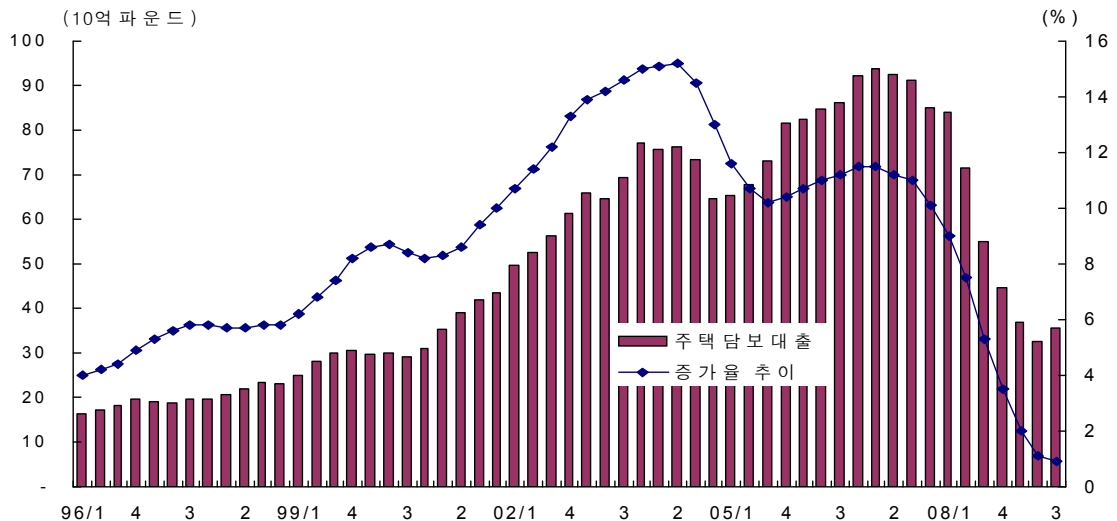
자료 : Halifax Bank.

3) Equitable Life 사건은 1762년에 설립된 영국의 생명보험회사 Equitable Life가 2000년에 사실상 파산상태에 돌입하여, 가입자의 연금과 퇴직적립금을 깎은 사건으로서 영국 대중에게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주택조합 (Building Society)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노력

-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을 모색하던 금융기관들도 주택담보대출을 확대시킴
 - 2000년대 초반 IT산업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신경제(new economy)가 무너지면서 금융기관들의 기업대출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
 - 2000년대 후반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2002년 약 500억 파운드 수준에서 2007년 2/4분기 930억 파운드로 증가
-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으로 새로운 모기지상품이 도입되면서 가계의 모기지대출 선택 폭이 넓어진 데다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로 모기지회사의 대출심사기준을 완화한 점도 주택담보대출을 확대
 - 저축계정과 모기지를 연동시켜 저축이 늘어나면 모기지 상환부담이 감소하는 Offset 모기지, 이자상환액이 영란은행 정책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하는 Base rate trackers 등 신상품이 속속 출현⁴⁾

< 영국의 주택담보대출액 장기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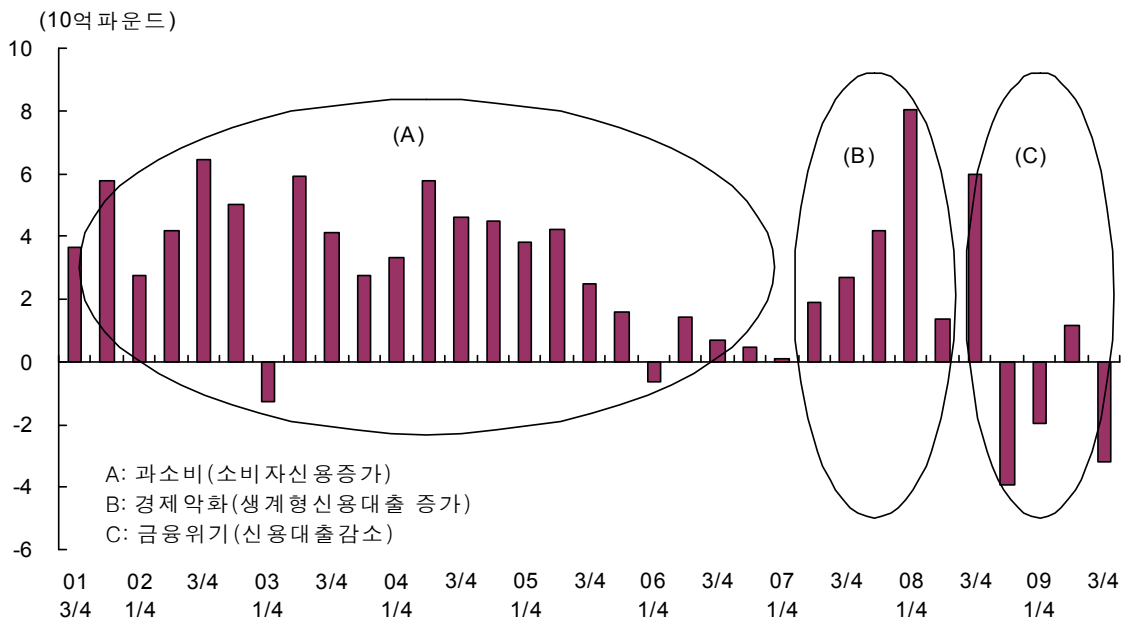
자료 : 영란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4) 일부 모기지회사는 2006.12월부터 임금의 5배까지 대출해주는 모기지상품을 판매.

○ (신용대출 증가) 영국 가계들은 2000년대 들어 과소비, 2006년 하반기부터는 생계형 지출 등으로 신용대출도 꾸준히 늘어남

- 2000년대 들어서 영국 경제상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나자 이에 필요한 자금수요가 급증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富의 효과에 힘입어 가계소비가 증가하면서 개인 신용대출이 증가
 - 특히 주택 소유층의 소비성대출이 늘어나고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구 교체, 실내장식 등을 위한 대출수요가 증가
- 2006년 하반기 영국경제 둔화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에다 증가된 차입부채에 대한 원리금 부담 등으로 생계형 신용대출이 급증
 - 2006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가계 저축률은 소득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여 마이너스를 기록
 -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 현상으로 소비자신용 급감

< 영국의 소비자신용 증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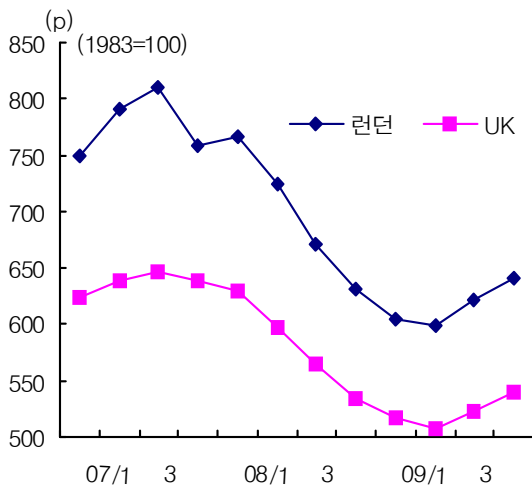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3. 가계부채 급증의 파급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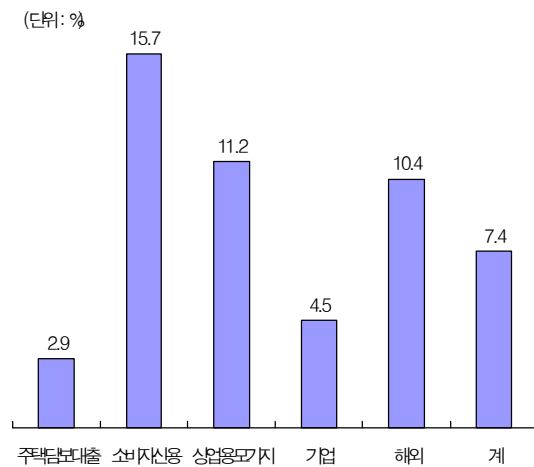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택가격 급락, 금융기관 부실 심화 현상 등이 나타나자 가계부채 급증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영국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대외 의존성이 높은 영국 은행권의 부실이 심화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시작한 2007년 하반기 이후 영국 전체의 평균 집값은 20% 가량 급락
 - 해외자산 의존도가 높은 영국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IMF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은행권의 총자산은 8조 3,690억달러, 이 중 상각액은 6,040억달러(상각률 7.2%) 추정⁵⁾)

< 영국 주택가격 지수 >



< 영국 은행권 상각률 추정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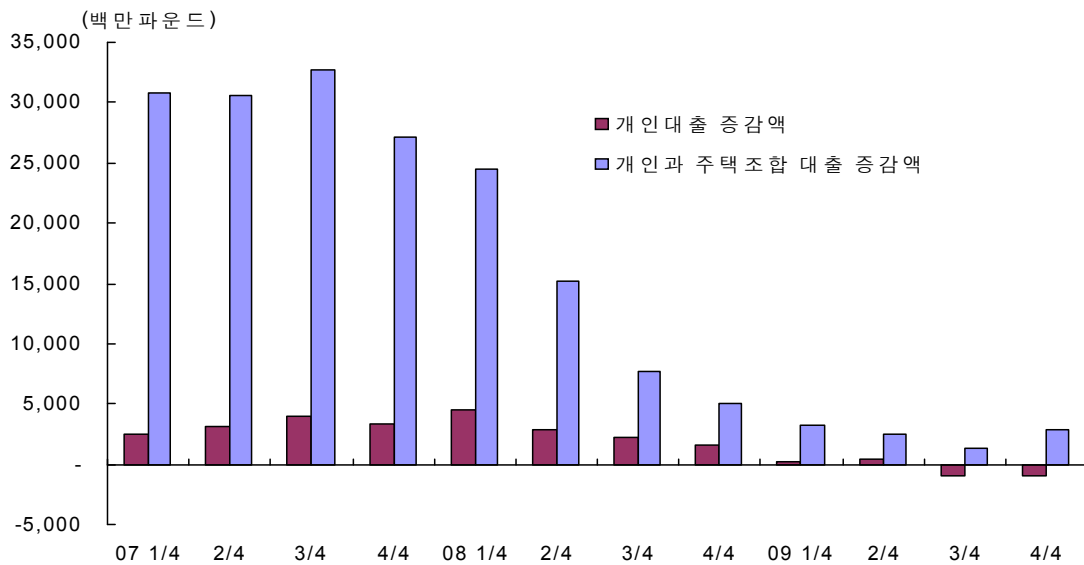
자료 : Halifax Bank, IMF.

- 가계부채가 급등한 상태에서 주택가격 하락은 주택매매가 되지 않은 가운데 원리금부담만 상승시키면서 소비능력을 위축시키고, 개인파산이 증가
 - 집값이 더 오를 것을 확신하고 집값이 오르면 상환하려던 대다수 주택구입자들은 2006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둔화되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

5)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의 8.2% 보다는 낮으나 유로존 3.6%, 기타 선진유럽 5.0% 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치임.

- 많은 주택차입자들이 주택매입자금에 대한 상환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원리금부담만 크게 증가
- 2008년 12월 현재 약 2만 8천명의 사람들이 파산(bankruptcy)을 했거나 아니면 현재 개별적으로 자발적인 조정절차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집계, 이는 지난 2005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약 55%나 높아진 수치임
- 한편 모기지부실 확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 현상 심화로 금융권의 개인 및 주택조합에 대한 대출이 급감
 -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로 영국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 특히 경기회복 지체와 부실인식 지연 등에 따라 소비자신용과 상업용부동산 등에서 추가적인 손실 여지가 높음
 - 영국 금융기관의 개인 및 주택조합 순대출에 대한 분기 증감액이 2008년 300~350억 파운드 수준에서 2009년 10~20억 파운드로 급격히 위축
 - 개인에 대한 분기 대출 증감액은 2009년 하반기 이후 8~9억 파운드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들이 오히려 기대출에 대한 상환을 하고 있음을 의미

< 영국 금융기관의 개인 및 주택조합 대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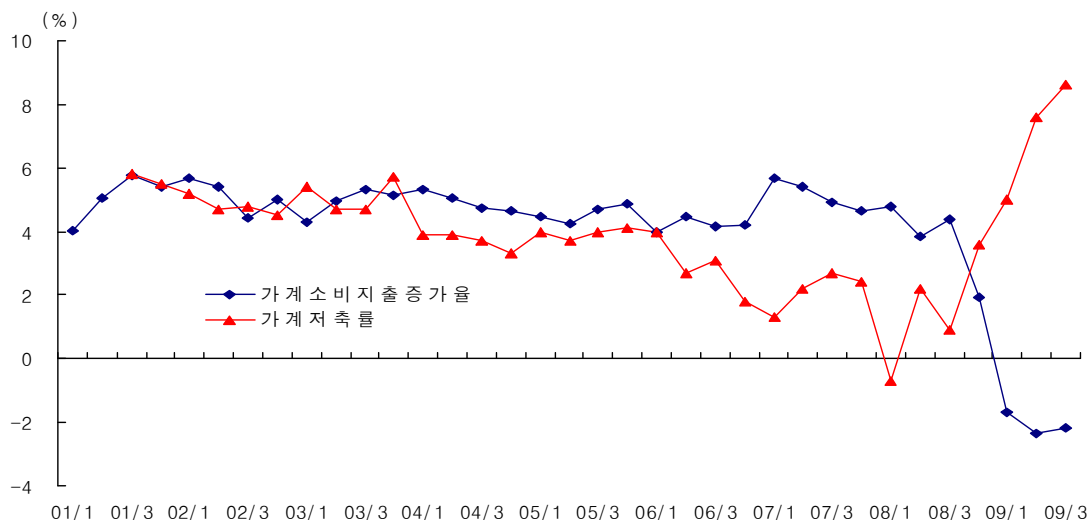


자료 : 영란은행.

○ 현재 영국의 소비가 급감하고, 여타 주요국의 경기회복 속도보다 매우 더디고 있는 등 경제상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 영국 소비자의 소비지출이 2009년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이에 따른 기업활동도 위축
 - 특히 2006년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였던 가계저축률이 금융위기 이후 급등하고 있는 것은 영국 가계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소비를 감소시켰기 때문
 - 이에 따라 기업활동도 크게 위축되면서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2008년 12월 -9.7%, 2009년 3월 -12.5%, 6월 -10.7%, 9월 -10.6%, 12월 -3.6% 등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파산기업수도 2007년 22,832개, 2008년 28,462개, 2009년에는 38,201개 추정
- 영국 경기회복이 둔화되면서 2009년 3/4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미, 일, 유로지역 등의 국가와는 달리 영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 2009년 3/4분기 전기대비 GDP성장률, 영국 -0.2%, 미국2.2%, 일본 0.3%, 유로지역 0.4%
 - 영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파운드화 가치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부도 위기에 대한 논쟁까지 가세

< 영국의 가계소비 및 저축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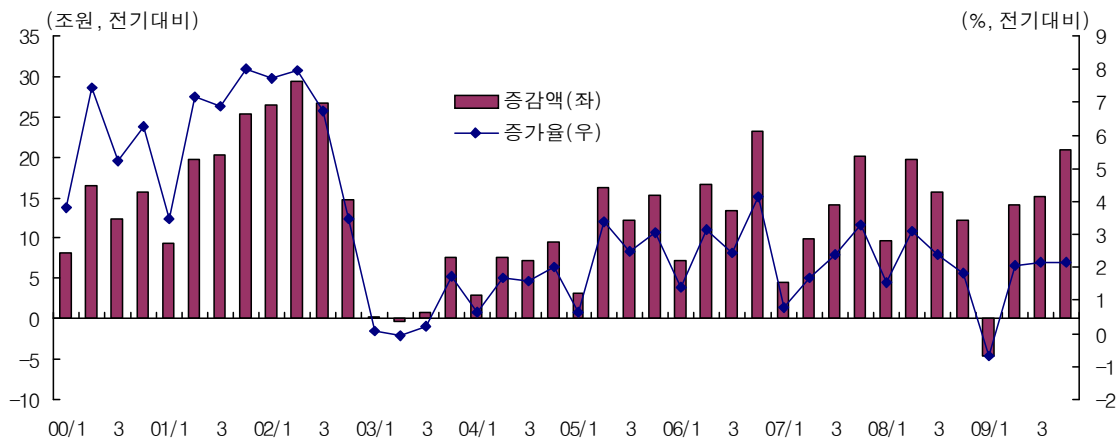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주 : 전년동기대비.

4. 국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시사점

○ 국내 가계부채도 2000년 이후 영국과 매우 유사한 배경으로 급증하고 있어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

- 2000년 이후 국내 가계부채는 영국처럼 저금리 기조 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데 편승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증가
 - 주택 수요 증가에 맞춰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판매 등 금융기관의 태도도 매우 유사하고, 환율 고평가를 이용한 해외 과소비도 유사
- (가계부채 급증) 국내 가계신용이 본격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009년 4/4분기까지 영국의 2.16배 증가 보다 훨씬 빠른 3.42배 급증
 - 가계신용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1/4분기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 (금융위기 속에서도 2009년 2/4~4/4분기 약 50조원 증가)
 - 2009년 4/4분기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733.7조원을 기록

< 국내 가계신용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가계 능력대비 과도한 부채) 과도한 가계부채로 가계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
 - 2007년 말 현재 개인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국내 개인금융부채는 약 150%로서, 이는 영국의 약 170% 다음의 높은 수준
 - 자금순환표상 금융부채/자산 비율의 경우 45%로 일본 20%대 초반, 미국 30%수준, 영국 35% 수준보다 월등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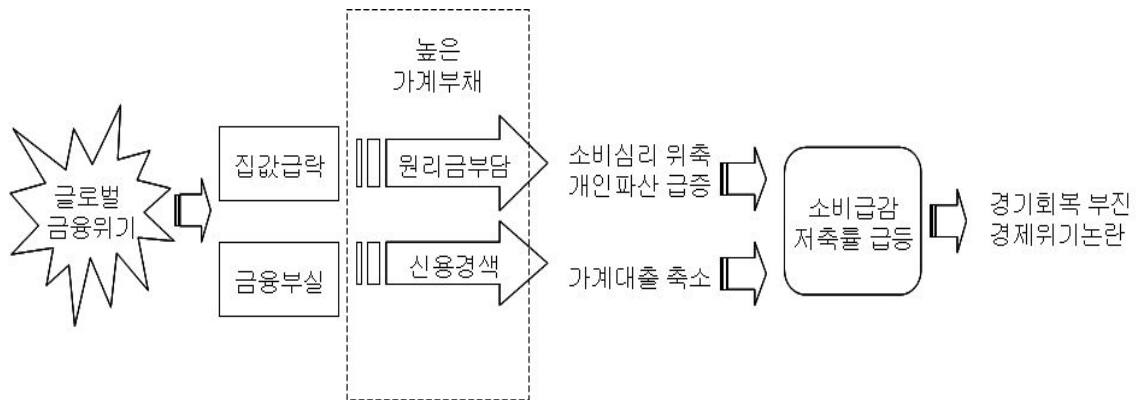
- (높은 원리금상환부담)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기조로 원리금상환부담률 (DSR, debt service ratio)이 하락하고 있지만 매우 높은 수준
 - 주택담보대출을 차입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은 15% 수준으로 미국의 13% 수준에 비해 높음
 - 앞으로 출구전략 등에 따른 금리 상승 시 이자부담 증가로 부채상환 부담이 더욱 크질 것으로 예상

- (자산 유동화 가능성 취약) 국내 가계자산이 대부분 실물자산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건 악화 시 현금화하기 어려움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실물자산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칫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거나 실물자산이 유동화 되지 못할 경우 금융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음

- (저소득층의 부채상환 능력 부재) 가계부채의 62% 이상이 소득 4~5분위의 중산층 이상이 보유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 가계부채 문제에 매우 취약
 - 자산이 없는 소득분위별 1분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배율이 4~5분위의 12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320%로
 - 1분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이 28%로 이는 2분위 14%, 3분위 12%, 4분위 11%, 5분위 11%에 비해 매우 높음

- **국내 가계부채 상황은 영국처럼 대외충격이 왔을 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바, 각 경제주체들은 사전에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내 가계부채 급증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악화될 경우 영국의 경우처럼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
 - 현재 한국의 경우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은행건전성이 유지되고, 비교적 빠른 경제회복을 시현하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영국처럼 대외충격이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높은 가계부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음

< 영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파급 경로 >



- (정부) 위험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안 마련
 - 곧 다가올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대비하여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가계 실태 파악과 국가경제에의 면밀한 영향 분석
 -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중산층의 실물자산 유동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가계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방안을 모색
- (금융기관) 금융시장 혼란에 대비한 사전 위험관리와 개인들의 신용위험 상승에 대비하여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필요
 - 금융기관들이 무리한 가계부채 회수를 할 경우 결국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 전체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책 수립
 - 국내 가계의 원리금 부담 축소를 위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미국 상업은행의 프라임모기지론 형식으로 20~30년 장기화
- (개인) 가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스스로 금융에 대한 이해력 제고
 - 지나친 실물자산, 예금 위주의 금융자산 등에서 탈피하여 주식, 보험, 연금 등 자본시장 상품을 적절히 배합한 안정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
 - 금융 책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금융지식 축적과 건전한 소비생활 지향 노력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3669-4009)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E)
	년	1/4	2/4	3/4	4/4	년	1/4	2/4	3/4	4/4	
미국	0.4	-0.7	1.5	-2.7	-5.4	-2.5	-6.4	-0.7	2.2	5.7	2.7
유로 지역	0.7	0.7	-0.3	-0.4	-1.9	-3.9	-2.5	-0.1	0.4	-	1.0
일본	-1.2	3.8	-5.2	-4.3	-11.4	-5.0	-12.3	5.2	0	4.6	1.7
중국	9.0	10.6	10.1	9.0	6.8	8.7	6.1	7.9	8.9	10.7	10.0
한국	2.2	5.5	4.3	3.1	-3.4	0.2	-4.2	-2.2	0.9	6.0	4.5

주: 1) 2008, 2009년 한국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1월 기준임.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19일	2월26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3.80	3.63	-0.17p
	엔/달러	90.76	96.65	92.93	91.69	89.17	-2.52¥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3604	1.3544	-0.0060\$
	다우존스지수	8,776	8,447	10,428	10,393	10,321	-72p
	닛케이지수	8,860	9,958	10,655	10,336	10,102	-23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4.18	4.10	-0.08p
	원/달러	1,259.5	1,273.9	1,164.5	1,160.4	1,160.0	-0.4원
	코스피지수	1,124.5	1,390.1	1,682.8	1,593.9	1,594.6	0.7p

주: 2월 26일 해외지표는 전일(2월 25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19일	2월26일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78.93	78.00	-0.93\$
	Dubai	36.45	71.85	78.06	74.03	76.00	1.97\$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76.15	270.87	-5.2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